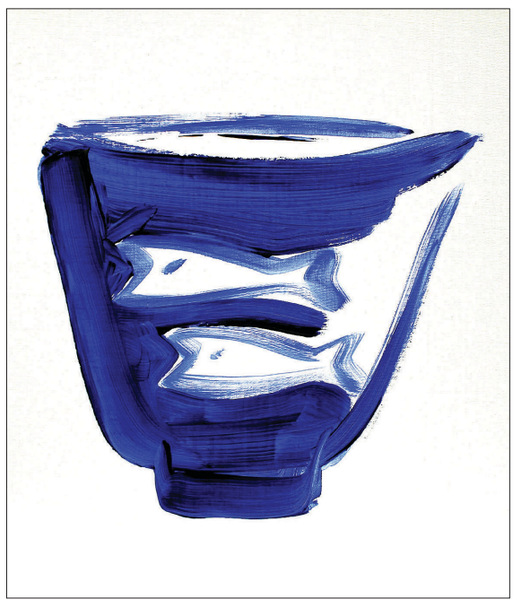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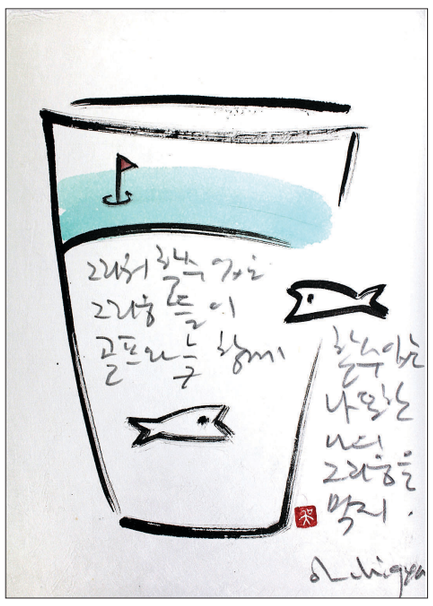

프로포즈1(한지에 먹, 석채)


대화(캔버스에 석채)


그리워 골프(캔버스에 먹, 연필)

보이지 않는 곳 채운 무형의 이야기

오치규 개인전 '餘白의 마음으로 다가溫'
12월 6~26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나우

물고기와 여백의 美로
일상 찌든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여유 전달하고파

금강 스님 컬래버레이션
6~12일 대전 갤러리C
'내 마음 탑 하나-겨울' 도

사람들은 흔히 여백을 '비어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조금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여백은 언제나 부담 없고 담백하다. 보이지 않는 그곳엔 나만의 못다 한 이야기, 널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모든 걸 담아도 드러나지 않는다.

먹과 여백, 그리고 물고기로 '묵상화(墨想畵)'를 그려온 오치규 작가가 개인전 '餘白(여백)의 마음으로 다가溫(온)'으로 돌아왔다. 12월 6~26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나우에서 전시되는 그의 작품은 수묵 · 아크릴 · 조형물을 중심으로 바쁜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여유를 선물한다.

"세상은 흑백의 논리를 좋아한다. 세상은 채워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작품행위는 빈 것을 채우거나 세상을 가늠질하는 행위를 일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잃어버린 것,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완성함에 있다고 믿는다." -작가노트 中-

오 작가의 그림은 언제나 그려지지 않은 부분의 여백 이야기가 중심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세상 속에 숨겨진 수많은 관념들이 고유의 색으로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그리고 이런 여백을 유유히 유영하는 물고기가 등장한다. 서해바닷가 보령출신인 오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온 생명체이자 용으로 탄생하기 위해 황하 용문협곡을 거슬러 오르는 '등용문'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불교적으로는 잠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깨어있는 수행자의 참 모습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잠시 멈추게 하고, 이내 생각하게 만든다.

오 작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꽉 찼다. 갖고 있길 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한 채 힘겨워한다.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며 "여백은 보는 이에게 생각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빈 곳에 다양한 생각을 담아보기도 하고, 그림에 투덜대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본다면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작화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과 '내 마음에 탑 하나'라는 주제로 두 차례 컬래버레이션을 한 바 있는 오 작가는 스님과 함께한 작품 중 그동안 선보이지 못한 것들을 대전에서 전시한다. 12월 6~12일 대전 둔산동 갤러리C에서 금강 스님과 '내 마음에 탑 하나-2017 겨울' 展을 개최하며, 만남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29회 불미전 대상, 최윤수 '보디스바하'

시상식 12월 4일… 17일까지 수상작 관람 가능

한국불교 최대 불교미술 공모전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의 제29회 대상 수상작으로 최윤수 작가의 '보디스바하'가 선정됐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설정, 이하 불미전)는 총132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11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 대상에는 최윤수 작가의 '보디스바하'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2점은 회화부문 일오 스님의 '백락사극락보전아미타후불탱'과 공예부문 원천수 씨의 '사천왕범종'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상 3점은 회화부문에 법인 스님의 '남장사 괘불', 조각부문 주성진 작가의 '주인공-환희', 공예부문 윤권 작가의 '법고'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장려상에는 △회화부문에 전진봉 작가의 '영산회상도'와 김송희 작가의 '감로탱화' △조각부문에 진귀원 작가의 '무아'와 한주영 작가의 '관세음보살마하살' △공예부문에 송성욱 작가의 '천불함'과 박봉현 씨의 '사리함'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은 회화분야 김호준 작가의 '개인불감', 이지선 작가의 '수월관음도'가 선정됐으며, 특선 5점, 입선 19점이 뽑혔다.


대상 수상작 최윤수 '보디스바하'

대상작인 최윤수 작가의 '보디스바하'는 석조각으로 목어 형태의 물고기 아래 운판과 범종 형태를 빌려 독자적 조형성을 품어낸 작품이다.

한편, 제29회 불미전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며, 수상작품은 시상식 이후 17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詩 · 畵로 전하는 마음 이야기

김양수 화가, 12월 6일까지 한국미술센터서 시화전

하늘과 달, 산과 바다, 들판의 풀꽃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시사한다. 김양수 작가는 이 같은 사색과 깨달음들을 화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지자(知者)들은 그의 작품을 '시보다 더 시 같은 그림'이라고 평한다.

오는 12월 6일까지 한국미술센터서 개최되는 시화전에서는 작가의 일상적 깨달음이 담긴 단시(短詩)와 그림들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사진〉 시화전은 김 작가의 4번째 시화집 〈새벽별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시화집에 수록된 작품들이 소개된다.

김 작가의 시와 그림 속에서는 자연 속에 살아가며 갖게 된 아름다움과 놀라움 등이 배어난다. 성찰과 깨달음은 그에게는 일상이기도 하다. 작업실 '적염산방(寂拈山房)'에서 고요함을 벗 삼아 살아가며 얻은 성찰이 시와 그림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양하는 마음으로 새벽별에 꽃을 전하거나, 무심으로 바다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김 작가는 "나와 내 그림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말 몇 마디와 글 몇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들과 소통하며 일체가 되길 꿈꾼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찬불동요 '풍경소리 45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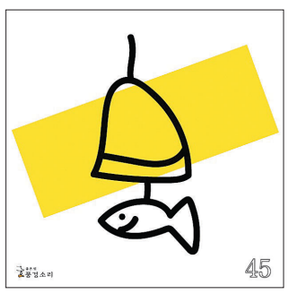
서근영 작곡가 '아침 서곡' 등 8곡 수록

좋은벗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앨범 '풍경소리 45집'〈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새로운 작곡가 서근영 씨(금강선원합창단 지휘)의 '아침 서곡'을 수록했으며, 1990년대 초 작곡돼 찬불가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풍경소리 대표곡 '길 떠나자(이종만 작곡)'를 경쾌한 리듬으로 리메이크한 편곡이 담겼다. 또한 한국창작동요계 거장 김남삼 작곡가의 '네비게이션 스님이 되어주세요', 안상민 작사가와 이종만 작곡가의 '저를 맡깁니다'를 비롯해 풍경소리 구성원들의 '날씨' '우리절 장독대' '가을잔치' 등 총 8곡의 노래와 반주음악을 선보인다.

좋은벗풍경소리 측은 "곡의 경쾌함으로 재미를, 장엄한 찬불가의 느낌으로 깊이를 담아내며 앨범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췄다"며 "곡들이 포교일선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1996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온 좋은벗풍경소리 작품집이다. 이 음반은 전국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교재로 활용되며, 어린이법회 · 불교학교 찬불가 교재와 산사음악회 등에서도 사용된다. **윤호섭 기자**



중국 대륙에 핀 한국불교미술

'동·고·락' 12월 1~4일 절강성 전시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미술전공인들의 모임 '동 · 고 · 락(東 · 苦 · 樂)'이 중국에서 불교미술을 선보인다.

'동 · 고 · 락'(회장 김인기)은 12월 1~4일 중국 절강성 가선현 오진문화원에서 제7회 '대륙의 여정'이라는 부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는 한국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중간의 민간교류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 청원스님과 명천 스님을 비롯한 30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불교미술 공예품과 동양화, 서양화 등 다양한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중국 절강성 오진문화원 중국작가도 참여한다.

김인기 회장은 "예술작품 전시교류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낳는 소통의 현장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동고락 전시는 한중간의 민간교류에 앞장서는 작은 외교관으로서 더욱 각별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2018년 3월에 의령문화촌갤러리에서도 이어진다.

하성미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